

강원도의 어업현황과 발전방향

김부경

강원도환동해출장소 수산정책관

I. 머리말

강원도 수산업, 나아가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역사는 우리민족이 대륙으로부터 동진하여 한반도에 이주한 역사와 기점을 같이한다. 이는 바다에서 채취, 어획한 수산물이 인간생활 유지에 매우 소중한 자원으로 각광받아 왔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수산업은 유구한 역사속에 오늘날까지 우리 국민의 생존산업으로서 타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1차산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수산업은 농업과 함께 국민식량공급원으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되새겨 볼 때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94년 UN해양법 발효와 더불어 세계 연안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관리를 위한 바다이용 정책강화 영향으로 '99 한·일, 2001 한·중 어업협정 등 한반도 해역을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해양영토권 선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연안어장의 오염심화,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 지구온난화 영향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어업생산에 한계를 맞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강원도 수산업의 변천, 어업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중점 살펴보고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II. 어업여건과 잠재력

1. 강원도 수산업의 변천

- ① 조선시대의 어업특성
- ② 일제시대의 수산업
- ③ 1950년대의 수산업
- ④ 부흥기를 맞은 60년대 수산업
- ⑤ 도약기인 70년대 수산업
- ⑥ 경제성장과 함께 한 80년대 수산업
- ⑦ 정체기를 맞은 90년대 수산업

2. 강원수산업의 여건

- ① 해안선이 단조로워 천연양항이 부족하고, 깊은 수심, 높은 파도로 어항 및 양식어업 개발에 어려움
- ② 한·난류가 교차하는 해역으로 계절별로 회유하는 어종을 쫓아 가면서 잡는 어선어업에 주로 의존
- ③ 동일해역에 각종 어패류 입체적 공존과 다양한 어구어법이 동시에 행하여

저 이해당사자간 분쟁 상존

- ④ 3중자망 등 어획강도가 높은 어구의 관행적 사용, 다량의 침체어망 방치, 해양수질 악화 등으로 연안수산자원의 지속 감소
- ⑤ 한·일 어업협정으로 대화퇴, 대마도 등 근해어장이 축소되어 어업생산량 감소 추세 가속화 예상

3. 개발 잠재력

- ① 긴 해안선과 천혜의 관광자원 풍부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주력산업인 관광 개발의 최적지
- ② 최근 증대되고 있는 대북교류 및 환동해권 국가간의 협력에 적극 대비할 수 있는 국내 거점으로서의 역할 전망
- ③ 접근망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역발전 여건이 크게 호전
- ④ 동, 서, 남해중 최대해역인 동해는 21세기 우리나라 해양자원개발의 중심으로 부상 전망
- ⑤ 수산양식기술의 발달에 따라 청정해역인 동해바다가 수산물 생산기지로 새롭게 부각

III. 발전과제

1. 어선어업을 위한 과제

- ① 자율관리형 어업실천
- ② 어선감축 추진으로 어업생산성 제고
- ③ 어업인 복리증진과 어업제도 개선
- ④ 어업활동 편의지원 및 행정서비스 확대
- ⑤ 동해 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인접국가간의 국제협력

2. 강원수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 ① 수산업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개발
- ② 어항, 어촌종합개발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
- ③ 연안역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오염 방지대책
- ④ 종합체계적 연안보존 개발
- ⑤ 해양수산을 연계한 해양레포츠 개발
- ⑥ 유통구조개선과 가공산업 육성
- ⑦ 동해안의 환동해권 중심지화 및 북방교역 전진기지화

IV. 맺는 말

동해가 전국제일의 "청정바다"라고 하는데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즉, 청정성이란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상품성을 지닌 무형의 자산이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 보존대책이 절실하다.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사전차단, 방지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이 2010년 이내에는 동해안 주요 도시에서 완전 가동되도록 연차별 시설중이다.

공사중인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2001. 11월에 준공될 전망이고, 2002. 3월이면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고, 나아가서는 주5일근무제 확대시행, 북강원도와의 육로관광 등이 가시화되면 강원도 동해안은 그야말로 해양관광지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청정상품이란 이미지와 맞물려 이지역의 생산 수산물의 인기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관리와 함께 대화퇴, 대마도 어장의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였고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는 어업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이전까지는 잡는 어업에 치중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정된 자원과 주변연안국가의 관계등을 감안할때 바다이용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에 대한 환동해권 국가별, 지역별 종합적인 진단과 함께 미래지향적 대안제시와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있어야 한다.

앞의 강원도 수산업 발전과제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우리 도는 연근해 수산자원량과 적정어선의 투입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 진행중에 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업종별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 효율적인 자원관리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환경보전을 중시하면서 수산자원보호, 효율적인 자원이용 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면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산업으로써 위치를 지켜 나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